

내 얼굴에 웃음이

정인창(스테파노)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날씨가 추워지는 초겨울이 되면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것은 왜일까?

내가 호스피스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한 지도 13년이 되었다. 하게 된 동기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내가 스스로 원했던 봉사(자원봉사) 활동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의사 지망생이었던 나 자신이 젊었을 때 호스피스라는 말을 신문에서 본 후 맨 먼저 마음속에 새겨 두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삼십 년간 부모님 덕에, 또 삼십 년간 사회생활(직장) 덕분에 살아왔기 때문에 나 스스로 봉사 활동으로서 보답하자는 순수한 생각에서이다.

지금도 생생한 것은 부산 성분도 병원(현 부산성모병원)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은 후 봉사 활동을 시작한 첫날이 내 생애 제일 기쁜 날이었다는 것을…….

그 당시 배운 것 중 지금도 굳건히 믿고 자부심과 활력을 얻는 것은, “호스피스(Hospice)는 말기 암, 간 경화 등 현대의학으로 더는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 환자들이 육체적 고통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 인간의 품위를 지키면서 임종을 편안하게 맞을 수 있도록 정서적·심리적으로 돌봐주는 서비스를 말한다.”라는 것과 우리나라 호스피스의 역사는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가 1965년 강원도 강릉에 갈바리의원을 개원하면서 호스피스라는 이름으로 말기 암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한 것이 시초. 이후 1988년 강남성모병원(현 서울성

모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을 신설하는 등 가톨릭계 병원과 기관들을 중심으로 호스피스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지금도 가톨릭계 병원들이 중심이 되어 호스피스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는 것도 가톨릭 병원들이라는 것에 가톨릭 신자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봉사 활동 내용을 돌아보면, 활동 초기에는 먼저 활동을 시작한 선배들과 병원 관계자들의 극진한 배려와 사랑이 활동의 활력소가 되었고 봉사자들 모두가 주어진 임무에 대한 책임감, 사명감으로 푹푹 뭉쳐서 활동하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 매월 모두가 모이는 봉사자 월례회를 통해 서로를 격려해주고 아껴주는 마음과 따뜻함 또 활동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반복 교육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하는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한다.

8년 동안 환우와 보호자와 함께하는 병실 봉사를 하다가 현재 목욕 봉사를 5년째하고 있다. 두 가지 다 환우와 보호자들의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느낄 수 있지만 나 스스로는 봉사하는 날(매주 금요일) 아침부터 설레고 가벼운 몸과 마음이 된다는 것을 봉사 처음부터 현재까지 느끼는 것은 얼마나 고맙고 기쁘인지 모르겠다. 여기에는 내가 간절하게 희망했던 봉사 활동이 있고 또 같이 활동하는 동료 봉사자들과 만남의 기쁨이 더 나아가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요사이는 보조 활동 인력들의 근무방식 변경(교대근무)으로 예전과 달리 서로 협조가 잘 되는 것 같아 안심된다. 목욕 봉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대부분의 환우가 처음 목욕을 많이 꺼리고 보호자나 간병인들의 권유로 마지못해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목욕 일을 기다린다는 것이다. 자신을 개방한 후에는 홀가분함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기억에 남는 환우가 두 분 있는데 한 분은 50대 초 간암 말기로 평소 테니스 동호인들과 게임을 하고 맥주파티를 즐겼다고 했고, 또 한 분은 70대 중반 폐암 말기로 담배를 즐겨 피운다고 했다. 두 분의 공통점은 정기 건강 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과거 얼마나 건강했었는지 모르시죠?”라고 했다. 그리고 병문안 온 후배들에게 담배 피우지 말고 당장 그 돈으로 병원 가서 CT 찍으라고 야단쳤다는 말이 귀에 생생하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거행된 제15차 세계 병자의 날 행사 때 베네딕도 16세 교황님의 담화문 일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난치병 말기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고통을 생각하고, 그분과 하나 되어 아버지께 의탁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고통과 함께, 여러분의 고통이 교회와 세상에 필요한 결실을 맺게 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고 생명의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영적인 격려와 힘을 언제나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제들과 사목 종사자들을 통하여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도와줌으로써 고통 받는 이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자비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교회 공동체들, 특히 병자들에게 봉사하는 공동체들에 당부합니다. ‘병자의 나움’ 이신 성모님의 도움으로, 아버지 하느님의 애정 어린 관심을 계속 효과적으로 증언하기 바랍니다.】

내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애초 설정했던 30년 자원봉사 활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회원되심을 축하드립니다

▶▶ 신입회원

- 성가톨릭병원 : Sr. 하선진, 권은성, 소재민, 이선주, 조정혜, 김성숙, 김미주, 정미라
- 여의도성모병원 : 고수연, 김유영, 성상모, 이수유, 임동춘, 장동우

▶▶ 평생회원

- 대전성모병원 : 유정희